

# ‘찾잔속 태풍’ 그친 종부세 개편... 집값 다시 슬금슬금

## 불편한 경제, 불편한 진실

### 〈4〉보유세 초강수?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수위 낮아져  
정부안서 공정시장가액비율 후퇴  
세수효과도 권고안보다 3000억 ↓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 고가(高價)주택 보유자, 다주택자를 겨냥해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린 것. 그러나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해 ‘찾잔속 태풍’이 될 것 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기류를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혼란한 모습이다.

#### ◆ 초강수일 줄 알았는데...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확정된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소득이 아닌 자산 과세의 특성을 감안해 점진적 개편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는 재정개혁특위에서 권고한 100% 인상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기재부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 효과, 재산



〈1세대 1주택자(세액공제 0%)〉

공시가격 (과표) (시가)	12억원 (2.4억원) (17.1억원)	16.5억원 (6억원) (23.6억원)	24억원 (12억원) (34.3억원)	35억원 (20억원) (50억원)
종부세	현행 75	187	554	1,357
	개정 80	215	713	1,790
	증감 +5 (6.7%)	+28 (15.0%)	+159 (28.7%)	+433 (31.9%)

〈3주택 이상자〉

공시가격 (과표) (시가)	12억원 (4.8억원) (17.1억원)	16.5억원 (8.4억원) (23.6억원)	24억원 (14.4억원) (34.3억원)	35억원 (23억원) (50억원)
종부세	현행 150	334	773	1,576
	개정 159	507	1,341	2,755
	증감 +9 (6.0%)	+173 (51.8%)	+568 (83.5%)	+1,179 (74.8%)

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의 격차 등을 고려해 인상 비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6억원 초과는 0.1~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경우 1주택자는 시가 23억~33억원, 다주택자는 시가 19억~29억원 이 대상이다. 아울러 3주택자 이상자는 0.3%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종합합산토지 세율도 0.25~1%포인트 올렸다. 다만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현행 유효하지 않게 했다. 별도합산토지의 대부분이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이기 때문. 재정개혁특위는 별도합산토지 0.2%포인트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종부세 개편안이 전체적으로 재정개혁 특위의 권고안보다도 수위가 낮아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세 번째 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이 권고안도 예상했던 ‘초강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부를 거치며 한 단계 더 툰다운(Tone down)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돼도 고가 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가 17억10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3주택자는 내년에 각각 종부

세(농어촌특별세)를 5만원, 9만원만 더 내면 된다. 23억6000만원 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보유세 증가분은 1주택자 28만원, 3주택자 173만원에 그친다. ◆ 집값 슬금슬금 ‘찾잔속 태풍’? 이번 개편안으로 서울 인상에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명 중 91%(24만8000명)가 제외되는 셈이다. 1주택자 기준으로는 시가 약 23억원의 주택 보유자도 세율이 오르지 않는다. 다주택자 과세 강화 방안에 영향을 받는 규모도 1만1000명에 불과하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연간 세수효과도 7422억원으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따른 최대치(1조881억원)보다 3459억원 감소했다. 종부세 개편안이 ‘찾잔속 태풍’이라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 홍정훈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기재부 확정안은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며 “별도합산 토지 세율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등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홍 간사는 “종부세가 다주택자나 고액 자산 보유자 등 부유층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개혁”이라며 “특히 3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하면 종부세가 감면돼 정부가 담은 기본 취지조차도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안 발표 이후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0.04% 올라 전주대비 상승 폭이 0.02%포인트 올랐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윤석모 연구원은 “이미 보유세 개편안의 세부 내용이 어느 정도 예고됐던 만큼,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안의 강도가 약해 오히려 실수요자의 불안감만 커졌다”라며 “오히려 불안감을 느낀 실수요자들만 집을 내놓고, 부자들은 가격이 재조정될 때를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 1면 ‘금융감독혁신...’서 계속

## ‘노동이사제’ 추진 금융위와 갈등 예고

다만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불일치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윤 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저보다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조금 더 보수적이라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금융위원장의 의견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혔다. 김갑원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나 선임사유 등 관련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키코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양보형,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방안은 빠졌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최근 금융권 상황을 감안하면 금융산업 발전은 소비자보호가 일점 수준 이상 올라온 이후에야 고려해 볼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윤 원장은 “금융산업 발전은 금융혁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혁신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소비자보호라는 터전 위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상미기자 smahn1@

## 세계 증류주 판매량 1위는 ‘진로’... ‘처음처럼’은 6위

### 英 주류시장 분석업체 IWSR

100대 주류 중 위스키가 29개

하이트진로의 ‘진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증류주(spirits) 브랜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이 6위에 오르는 등 2개의 한국 브랜드가 판매 상위 10대 증류주에 포함됐다. 8일(현지시간) 영국의 주류시장 분석기관인 IWSR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증

류주 판매 순위를 집계한 결과 진로가 9리터(l) 통을 기준으로 7천591만개가 판매돼 전 세계 브랜드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진로는 판매량이 전년 대비 0.8% 증가하면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2위 브랜드와 격차가 4천400만통에 달한다고 IWSR은 밝혔다. 지난해 증류주 판매순위 2위는 태국 ‘타이 베버리지’의 ‘루앙 카오(Ruang Khao)’ 브랜드로 9l 통 기준 3천175만개가 팔렸다. ‘루앙 카오’는 전년 3위에서

지난해 2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2016년 판매 2위였던 ADB의 인도 위스키인 ‘오피서즈 초이스(Officer’s Choice)’가 지난해 3천151만통이 판매돼 3위를 기록했다.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브랜드는 전년 대비 2.2% 늘어난 2천551만통이 팔려 6위에 올랐다. 이들 주류가 모두 지역에서 인기를 얻는 제품인 반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주류 중에서는 디자이오의 보드카인 ‘스미노프(Smirnoff)’가 2천563만통의 판

매량을 기록해 가장 높은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스미노프’는 지난해 155개국에서 판매된 것으로 분석됐다. 스카치 위스키의 대명사인 ‘조니 워커(Johnnie Walker)’ 브랜드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2% 늘어나면서 12위, ‘바카디럼(Bacardi rum)’이 13위, ‘잭 다니엘(Jack Daniel’s)’ 위스키가 14위를 각각 차지했다. 술의 종류별로는 위스키가 29개로 가장 많았고, 보드카(19개), 럼(6개) 등으로 집계됐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 훼손된 갯벌 5년간 14개소 3km<sup>2</sup> 복원... 195억 가치 되살린다

### 해수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3km 갯벌 물길 회복시킬 것 어업증진·생태관광 등 기대

정부가 연간 195억원에 달하는 갯벌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향후 5년간 갯벌 3km<sup>2</sup>를 복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확대, 사업관리체계 강화, 복원지역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시행방안을 담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2019~2023)’을 수립·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중장기 계획 없이 추진돼 매년 평균 1개소씩 9년간 9개소(면적 1.08km<sup>2</sup>, 물길회복 3.4km) 완료에 그쳐 복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해양생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명노현 해양생태과장이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 수산자원, 토목기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업의 특성으로 인

해 사업설계·공사시행,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2023년까지 14개소의 복원사업을 완료해 3km<sup>2</sup>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고, 3km에 이르는 갯벌 물길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폐염전 또는 폐양식장 등 버려진 갯벌을 재생하거나 폐쇄형 연륙교 등으로 해수유동이 단절된 갯벌의 옛 물길을 회복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화된 복원사업 기술지침을 마련·보급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대폭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갯벌 복원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증진하기 위해 갯벌 갈기, 종패 살포 등을 추진 등을 확대하고 복원갯

벌의 브랜드화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해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명노현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중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연평균 약 195억 원에 상당하는 갯벌 가치를 되살리겠다”며 “회복된 갯벌을 지역주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갯벌어업 증진과 생태관광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갯벌인식 증진, 정정갯벌 지정, 오염정화, 갯벌복원 등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가진 갯벌을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복원·이용하기 위해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